



# 제주를 기억하는 저마다의 방법

### 서울 제주갤러리서 이경재 개인전 '내가 사랑한 제주' 감저갤러리서 선보이고 있는 우정화 작가의 '새로운 섬'

작가 저마다의 시선으로 재해석된 제주의 모습, 기억이 펼쳐진다.

서울 인사동의 인사아트센터 내 위치한 제주갤러리에서 이달 15일부터 제주출신 이경재 작가의 '내가 사랑한 제주 III, 화산섬-한라를 품다' 개인전이 열린다.

'내가 사랑한 제주'의 세 번째 시리즈인 이번 전시에선 작가가 화산섬 제주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격정적 어조로 담아낸 작품 40여 점이 내걸린다. 제주 자연을 개성적 시각으로 표상한 회화와 목판화 작업들이다.

제주갤러리는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제주 지역의 특정한 장소들을 포착해 땅의 역사와 가치를 환기함으로써 화산섬의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선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고향 제주의 풍경을 특유의 프리즘으로 걸러내 강한 에너지와 흡입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작가는 "한라산의 하늘은 어두운 밤 풍경의 은하수를 연상할 수 있고, 눈 내리는 겨울 풍경처럼 보일 수 있다. 해안에서 바위를 치고 때리는 파도의 미세한 물보라는



이경재 작 '화산섬-한라를 품다'

화산섬이 뿜어내는 에너지이며 은하수에서의 영감을 얻은 별이 쏟아지는 조합일 수 있다"며 "이번 전시 작품 대부분은 두 개의 조합과 조율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기간은 3월 6일까지다.

제주에선 우정화 작가가 2021년부터의 제주 생활과 기억을 담은 작품 20여점을 선보이는 전시를 열고 있다.

아트랩과산이 운영한 아티스트 레지던시와산의 입주작가로 창작 활동을 진행해 온 우정화 작가는 입주 기간 평면과 조각,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실험과 연구를 거듭해 왔다.

서귀포 감저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UNDISCOVERED

HAVEN, 새로운 섬' 전에는 제주에서의 생활이라는 물리적 상황 속에서 작가가 내적으로 마주한 상황에 착안한 작품들이 내걸렸다.

자신의 지나간 시간과 기억들이 유기적으로 조합된 결과물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작가가 기존에 사용했던 삼각형들의 변화를 비롯해 제주의 자연과 곳곳에서 보았던 다양한 천연색, 여러 물질들의 표면과 촉각을 시각화한 작품들이다. 작가의 화면 속에서 이뤄지는 색들의 변화와 흐름의 연결은 작가가 제주에서의 생활 동안 보고 느낀 것이기도 하다.

전시작은 이달 17일까지 만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우정화 작가의 'UNDISCOVERED HAVEN, 새로운 섬' 전시 전경.

## 제주섬 밖 풍광에 머문 시선

### 박광진 화백 기증작품 상설 전시

### 제주현대미술관 분관서 9월 10일까지

제주섬 밖으로 향한 작가의 시선을 따라 화폭에 담긴 이국적 풍광에 빠져보자.

제주현대미술관 분관에서 '섬 밖-어느 날 또 다른 시선'을 주제로 한 박광진 화백의 작품이 상설 전시된다.

한국 현대미술 1세대 작가 박광진이 제주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49점 중 제주 밖의 풍광 18점을 선별해 구성한 전시로, 1970~80년대 구상력이 탄탄한 시기에 완성된 작가

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50여 년을 제주 자연 풍광을 그리던 와중에 제주를 벗어나 한반도와 해외 곳곳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풍광을 화폭에 담아낸 작품들로, 국내를 포함한 네덜란드, 아프리카,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이국적 정취를 마주할 수 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은 "박광진 화백이 제주자연과 비교되는 국내의 명소를 찾아 독자적 화풍을



박광진 작 '성당'

확립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라며 "작가의 폭넓은 예술 여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 힐링이 있는 오페라 이야기

### 이달 18일 서귀포예당에서

은 가족이 함께하는 오페라 인문학 특강 '힐링이 있는 오페라 이야기'가 이달 18일 오후 3시 서귀포예당 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모차르트 '마술피리', 비제 '카르멘' 등의 주요 아리아는 물론 세기의 프리마돈나 '마리아 칼라스', 전설의 테너 '파바로티' 등을 이기던 강사의 재미있는 해설과 소프라노 임경애, 테너 윤정수의 환상적인 연주로 마추할 수 있다. 강좌는 전석 무료며, 선착순 지정좌석으로 당일 1시간 전 입장권을 배부한다. 오은지기자

## 황학주의 시詩: 읽는 화요일 (6)

### 혼자 먹는 밥

송수권

혼자 먹는 밥은 쓸쓸하다

숟가락 하나  
늦깎이밥 돌  
그 불빛 속  
말그락거리는 소리

그릇 벗어 엮다 보니  
무덤과 밥그릇이 닮아 있다

우리 생에서 몇 번이나 이 빈 그릇  
엮었다  
되집을 수 있을까

창문으로 얼비쳐 드는 저 그믐달  
방금 깨진 접시 하나



심화-써머

일해서 얻는 게 밥입니다. 생은 여차저차 밥을 먹고 밥을 건어 오는 일입니다. 일 마치고 돌아와 스미는 불빛에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혼자 차려 먹습니다. 밥을 또 다른 밥으로 채워야 하는 빈 그릇 같은 생은 어둑어둑한 그림 달빛 아래입니다. 육신도 정신도 되었다가 육신도 정신도 못 되었다가 하는 밥 한 숟갈, 그 한 숟갈을 퍼서 무덤으로 옮기는 것인데 무수히 그릇을 내려놓고 그릇을 엮고, 마침내 가장 가난한 자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깨진 그믐달은 알고 있을지, 과연, 몸져 돌아누운 무덤도 엮었다 되집을 수 있거나 한지, 하여간에 어서, 혼자 먹는 밥을 식기 전에 어서 먹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라며? 아직 으스스한데, 울안 복수초 노란 꽃잎이 피어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인>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액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액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 장 강 동 우  
청각학박사과정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  
청각학석사